경서비교지식의 확장: HWPL 종교연합사무실과 종교평화아카데미

이브라히마 둠비아
모스크 아샤불키사 오디엔느 이맘, 코트디부아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사 숙녀 여러분,
살람 알레이쿰.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슬람교의 인사 법이며 코란 33장 44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의 인사는 살람(평화가 깃들기를)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HWPL에서 주체하는 제6회 지구촌 종교지도자 콘퍼런스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선, 이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세계 평화를 알리고, 여러 종교 간의 화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양한 종교 교파 문제로 이 나라의 형제와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행동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었고, 이 상황이 저를 평화의 일에 종교인으로써 참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랑바삼이라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동네에서 자랐고, 서로 종교가 달랐어도 동네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각자 종교에 따라 다른 예배 장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 우리는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위기 상황이 우리 나라를 뒤흔들었고 종교 간에 불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2010년,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집안은 한 기독교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맘들의 국가 위기 상황을 더이상 지속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덕분에 내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족과 종교 간의 화합이 갈등을 완화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가 신앙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타 종교 경서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러한 유대감을 증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긴밀하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평화의 빛이 회당, 교회, 성전 및 사원의 신앙인들에게 퍼지도록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교 간 대화는 통합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공익을 위한 협력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과 평화에 기여합니다. 공감은 서로의 견해차를 받아들이게 해주는 열쇠이며, 경서를 읽고 묵상함으로 서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종교 모임에 여러 교회와 다른 모스크(이슬람사원)를 자주 초청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저는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종교연합사무실을 통해 비정부 단체인 HWPL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제1회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위한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가 종교를 화합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최고의 용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에게는 적과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르는 것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큰 적은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아는 것"은 무지의 반대입니다. 아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을 더 잘 이해하고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는 것은 개인을 무지와 불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와 세상과 더 많이 연결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알아가고 경서를 통해 다른 종교를 알아가면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즉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개인 간의 사랑이 생기게 하며, 지속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먼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신뢰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 우애,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가 옵니다.

ISKCON종교와의 만남이 그 증거입니다. 하레 크리슈나로 불리는 ISKCON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불안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한 HWPL의 노력 덕분에 2022년 11월 코트디부아르 제72차 종교연합사무실에서 ISKCON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 대한 그의 증거는 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가바드 기타 5장 29절을 읽으면서 저는 다른 종교도 평화의 개념이 유사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두려움과 불신의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종교연합사무실에서 이어진 토론에서 제 앞 모든 분들이 제 형제, 친구로 보였습니다. 회차를 거듭 할수록 저는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종교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경서 교류를 통한 돈독한 우애가 자라났습니다.

종교연합사무실은 매달 교류하던 것을 넘어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종교연합사무실에서 교류하던 목사님과의 관계는 이제 매주 대화하는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서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그는 코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저는 그의 설명을 통해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예배를 드리는 이슬람 사원에 저와 교류하던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저의 형제 자매들을 저희 이슬람 공동체의 중요 행사에 초대하고 싶어졌습니다.

요약하면, 종교 간 우애를 지지합니다! 우애는 소통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HWPL 종교연합사무실 덕분에, 저와 제 친구들 (목사님들과 사제들)은 자주 연락하고 다양한 경서와 종교적 실천의 공통점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1893년 9월 시카고에서 130년 전에 최초의 종교 의회가 열렸음을 기억합시다. 그러나 20세기가 지나고 오늘날까지 평화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확실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만희 대표님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세계평화를 위해 비정부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설립하셨습니다. HWPL은 종교연합사무실을 통해 서로의 경서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활성화고자 국제적인 플랫폼(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을 제안하여 경서 비교를 장려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기독교 강의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정우 베드로 지파장님의 강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서를 통해 종교 간에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의자가 "마지막 때의 징조"(마태 복음 24:19)를 언급했는데, 이는 코란의 수라 22장 (1 절과 2 절)과 완벽하게 들어 맞으며, 세상 끝에 아이 밴 자와 젖 먹이는 자를 언급합니다. 지난 8월 성경 심화 과정에서 저는 또한 경서들 속 비유들의 유사점을 발견했고 이 비유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31-32과 유사하게 코란(수라 48:29)에서도 믿음이 씨앗에 비유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신앙은 서로 다르지만 안전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삶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 장소를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를 포함하여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간의 협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저는 평화를 가로막는 도전과 한계를 넘어서자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기보다 HWPL이 제안한 종교평화아카데미를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것은 사람들 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주님께서 [또는 경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평화의 프로젝트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맘 알리 (Imam Ali)가 말레크 아쉬타르 (Malekh Ashtar)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더 키워서, 그들을 위한 선과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포식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거나 너와 비슷한 사람이므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둘 다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푸십시오."